

간병사 유니폼의 착용만족도와 개선요구도*

Wearing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Needs of the Caregiver's Uniform

김진선 · 권수애**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Jinsun Kim · Sooae Kweon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earing satisfaction and needs of the caregivers' uniform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03 who are serving in the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 Chungcheong region. It was coherently found on the whole that the irrelevance to the fitness of size system influenced the discomfort, and the relation between discomfort and satisfaction revealed negative-correlation, and the higher the discomfort is and the lower satisfaction is, the higher their improvement needs are. Particularly, the higher the discomfort on the fitness of size system is and the lower its satisfaction is, the higher the improvement needs on the size system and activities are. As a result, the clothing construction and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the complement of the fitness and discomfort's incongruity is required. Namely, the yoke of the back area and the various detail for the activity, the materials satisfying stretch, good-touch, antibiotic · function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size system are needed.

Key Words : caregiver, caregiver's uniform, wearing satisfaction, improvement needs, fitness.

I. 서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족의 역할 및 기능이 축소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돌봐 줄 가족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간병사란 비의료인으로서 가족을 대신하여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장옥자, 2002),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김문실 등(1994)의 연구에서 간병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간병하기 힘들어서라 하였으며, 간병사가 행하는 활동은 신체청결, 식사 돕기, 배설 등 신체적 간호와 관장, 침상목욕, 흡인(suction)간호, 위관영양

(L-tube feeding) 등 간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활동까지 수행한다고 하였다(장성옥 외, 2003). 시·도립 노인병원의 간병사는 100병상 당 29.2명으로 100병상 당 16.1명을 배치하는 간호사 수에 비하면 2배 정도에 달하고(최항석, 2006)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종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은 기존의 간호사복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간병사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간병인 실태와 간병 활동에 관한 연구(김문실 외, 1994; 임국환 외, 2005; 장옥자, 2003; 정경옥, 2004; 최항석, 2006; 황나미·고택기, 1998; 황나미 외, 2006a), 간병서비스의 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인숙, 1999; 변재관, 2001; 장옥자, 2002; 황나미 외, 2006b), 간병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은희, 2004; 전귀숙, 2001)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사를 대상으로 한 유니폼 개발에 관한 연구(이은영, 2006), 노인 간병사 유니폼을 위한 색

* 이 논문은 2006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weon, Soo-Ae

Tel: 043) 261-2748

E-mail: sooae@cbnu.ac.kr

채와 향기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관한 김진선·권수에 (2006)의 고찰 정도로 매우 미비한 상태에 있다. 간호사의 유니폼이 활동성보다는 역할상징성을 중요시하는 것(조홍식 외, 1998)과는 달리 간병사 유니폼은 활동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능성 있는 간병복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사를 대상으로 유니폼 착용시 맞춤새와 불편도, 소재 적합성 및 개선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간병활동에 적합하고 근무시 전문성을 살리면서 맞춤새, 활동성, 쾌적성을 향상시킨 간병사 유니폼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간병사의 개념

‘간병인’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환자를 돕고 보수를 받으며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으며(김인숙, 1999), 간병사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으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지 않고 환자를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비의료인을 말한다(최항석, 2006).

우리나라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병인력은 크게 두 종류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과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와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인력으로 간병사와 케어 복지사로 나눌 수 있다(변재관, 2001). 케어 복지사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로서 일상생활을 원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민간 자격증 제도를 갖추고 있다(<http://www.ccca.or.kr>).

본 연구에서 간병사는 가족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포괄하는 ‘간병인’과 달리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간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항석(2006)의 노인전문병원의 간병인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간병사는 45세 이상의 고졸 여성이 60% 이상으로 10년 전에 임국환 등(1995)의 연구한 전귀숙(2001)의 연구와 비교하면 학력 수준은 점차 높아졌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간병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간병사의 수요가 높아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병 경력 이 짧은 사람의 종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간병사 유니폼의 특성

유니폼은 착용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작업복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직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켜 역할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니폼은 업무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심순학, 1993; 이형룡 외, 2005; 황은경 외, 2006). 현대 패션의 감각을 도입하여 색채와 형태면에서 통일된 유니폼을 이용하면 소속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유영선, 2006). 유니폼은 착용자의 작업내용이나 활동량, 계절 등을 생각하여야 하며(이옥희 외, 1997), 불필요한 장식은 피하고 여유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신인수, 1984). 또한 착용자의 기호에 맞고 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심미성도 요구된다(유영선, 2006).

간호사 유니폼의 만족도를 연구한 정지숙(2000)은 간호사들이 상징성과 기능성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고 하였고, 강미정(2003)도 간호사 유니폼의 상징성이나 로고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유니폼은 흡수성, 건조성, 세탁성, 내추성이 좋아야 하고(남윤자 등, 1997b), 제작 원가가 경제적이어야 한다(이은영, 1990). 따라서 간병사 유니폼은 간병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세탁용이성 및 형태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입고 벗기가 편리하여야 하며(정삼호 외, 1999), 병원군이 쉽게 침입하지 않도록 고려하고(최혜선 외, 2003), 식별 가능한 동시에 주변 환경과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디자인의 단순성은 작업의 효율성, 기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한연희 외, 2005), 간병사는 환자를 돕는 보조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순하면서도 활동에 편리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여밈에 꼭 필요한 패스너나 버튼, 주머니 외에는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병원 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간병사복의 개발에 관한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 시판 간병사 유니폼의 디자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블라우스 형태의 상의와 바지로 분홍색이 많고, 블라우스는 앞중심이나 옆중심 여밈에 라운드 네크라인이나 솔칼라, 프린세스 라인이 있는 디자인이며 허리선 아래쪽으로는 다소 퍼진 형태가 많았다. 바지는 허리둘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뒷부분이나 양 옆을 고무줄로 처리하고 밑위는 대체로 길게 제작되었다고 하였다.

유니폼 소재는 형태 안정성, 신축성과 내구성, 위생 기능성(통기성, 흡습성), 향균성 등이 필요하며(이은영, 2006),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흡수, 건조가 잘 되고, 세탁 후 수축, 변형 및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야 한다(남윤자 외, 2007b). 최혜선 등(2003)에 의하면 유니폼의 소재에

는 세탁이 용이하고 형태 안정성이 좋은 합성섬유와 혼방하여 사용된다.

간병수행업무는 동작 범위가 큰 작업들이 많이 있어서 작업 능률상 활동성을 고려하여 폴리우레탄을 혼용한 신축성소재가 적합하며(남윤자 등, 1997a), 나일론 계열 스판덱스 혼방 소재의 세탁, 마찰, 일광, 해수, 땀, 염소수에 대한 견뢰도를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최혜선 외, 2003). 오염되기 쉽고, 착용 중 구부러거나 마찰을 하게 되므로 내구성도 좋아야 한다(신인수, 1984). 겨드랑이 부분에는 흡한 속건성 소재를 사용하여 위생 기능적 성능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대표적인 소재의 예로는 Coolever™를 들 수 있다(최혜선 외, 2003). 고기능 쾌적성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단면 차별화 기술을 통해 형성된 십자단면에 의해 피부의 땀, 수분 등을 빠르게 흡수하고 원단 바깥층으로 배출시켜 외부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활동이 많은 착용자로 하여금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느끼게 하는 고성능 소재이다(<http://www.huvis.com>). 이은영(2006)의 선행연구에서는 활동성을 위해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의 혼용 소재를 사용하였고, 겨드랑이 부위의 걸감으로는 흡습 속건성 쾌적섬유인 Coolever™를 무로 사용하였다.

항균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병원 환경에서의 세균 오염을 막아 간병사 자신뿐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항균가공과 같은 후가공을 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혜선 외, 2003). 간병사 유니폼에 사용될 만한 항균성 기능을 가진 기능성 소재의 예로는 ATB®-100을 들 수 있다. ATB®-100은 흡한 속건성을 갖춘 쾌적 섬유 기능성에 은계(銀系) 항균제를 도입한 뛰어난 항균 방취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우수한 내구성과 드레이프성까지 겸비하여 이너웨어(innerwear), 스포츠 유니폼, 여성용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이 가능하다(<http://www.ikolon.com>).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간호사와 간병사 유니폼의 소재는 거의 흡사하다. 간호사복의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김선희(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복 소재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내구성, 세탁성 등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땀 흡수와 관계있는 흡습성과 신축성, 통풍성, 정전기 및 구김성 등에서는 대부분 불만족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업무는 환자의 체위변경, 부축이동, 침대에서 일으키기, 침대정리, 목욕시키기, 운동보조 등 비교적 다리, 무릎, 팔, 겨드랑이의 움직임 범위가 큰 편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간병사 유니폼을 개발한 이은영(2006)은 상의 앞여밈을 중심에서 옆으로 이동하고 겨드랑이에 무릎 삼

입하였으며 등에 맞추름을 두고 앞길이는 짧고 뒤는 길게 하였다. 하의 허리 양옆에 고무줄을 넣고, 무릎의 당김을 방지하기 위해 무릎다트를 넣고, 바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스트링과 끈 주머니를 달아 실험복의 외관 평가, 동작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복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복의 맞음새가 컸던 목둘레 부분을 실험복에서 수정하였으나, 외관과 활동적합성 평가 결과 목둘레가 답답하다는 응답이 나와 목둘레의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병사 유니폼은 병원 환경과 착용자의 신체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착용자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능성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본 조사를 위해 2007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서울, 경기, 충청지역 12개 종합병원과 1개의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303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선희, 2002; 김인화, 2006; 이은영, 2006; 최종명 외, 2002)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병업무에 대한 7문항, 유니폼 착용현황에 대한 16문항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고, 간병업무현황 3문항, 유니폼의 치수 맞음새 32문항, 유니폼의 불편도에 관한 22문항, 유니폼의 디자인, 색, 치수, 착용감 등 만족도에 관한 10문항, 소재 적합성 14문항, 디자인, 소재, 치수체계 등 개선요구도에 관한 12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고 소재 감각선호도에 대한 36문항은 7점 의미미분 척도를 사용하였다.

착용한 유니폼의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11문항은 설문조사시 면접자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였으며, 그 외 설문내용은 간병사를 직접 만나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사후검증 LSD),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만족도의 하위변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51세 이상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6세~50세 26.4%, 41세~45세 22.1%, 40세 이하 8.9%로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여성이 73.8%에 비하면 간병사의 연령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96.7%,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3.2%, 학력은 중졸38.0%, 고졸 47.3%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였던 최항석(2006)의 연구에서 고졸이상이 75%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34.7%, 천주교 21.5%, 불교24.4% 등 고르게 분포되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3~24시간이 40.9%, 9~12시간이 38.6%, 8시간 이하는 20.5%로 8시간제 정규 근무제를 원하는 사람이 94%이상인 최항석(2006)의 연구보다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사의 소속은 간병인협회인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현재 돌보고 있는 간병대상은 노인성 질환환자(33.0%)와 장기 외병환자(29.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평균 간병지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 39.2%로 가장 많았다. 간병업무가 힘들다고 응답한 간병사는 72.2%,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49.8%, 만족하는 경우는 8.6%에 불과하였다

2. 간병사 유니폼의 착용 실태

간병사 유니폼의 수급처로는 소속단체인 경우가 53.8%, 개인이 마련하는 경우가 36.3%, 병원인 경우는 9.9% 정도였고, 착용한 유니폼 형태는 바지투피스형이 83.8%이며 원피스나 스커트투피스형을 착용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여 간호사 유니폼 착용과 유사한 결과(김용덕,2004; 김선희,2002)를 보였다. 유니폼을 입수하는 경로는 기성복 구매가 61.7%, 개인 맞춤 27.1%, 무상 증여가 11.2%이었다. 치수 호칭의 종류는 55/66/77(39.9%)이나 S/M/L(37.6%)의 호칭 체계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신체치수 표기법을 다른 기성복 분야에서보다 더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착용한 유니폼의 치수는 77, XL, 66 등의 순으로 대체로 큰 치수 의복을 착용한 것은 이은영(2006)의 조사와 일치하였다. 겨울에는 유니폼 안에 상/하의 모두 더 많은 속옷을 착용하였고, 여름에는 70% 이상이 브라지어와 브리프에 유니폼만 착용하였다.

간병 현장에서 착용한 간병사 유니폼의 디자인과 소재

<표 1> 착용한 유니폼의 디자인과 소재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디자인	실루엣	박스형	220(72.6)	
		프린세스 라인	83(27.4)	
	상의 여밈	앞 중심선	271(89.4)	
		중심선 왼쪽	32(10.6)	
	네크라인 /칼라	라운드 네크라인	52(17.2)	
		브이 네크라인	32(10.6)	
		플랫 칼라	78(25.7)	
		터틀넥 옆트임	6 (2.0)	
		리본 칼라	11 (3.6)	
		밴드 칼라	102(33.6)	
		셔츠 칼라	7 (2.3)	
		테일러드 칼라	13 (4.3)	
		기타	2 (0.7)	
	깃길 요크	요크 없음	253(83.5)	
요크 있음		50(16.5)		
주머니	상의	없음	85(28.1)	
		1개	가슴부위	22 (7.3)
			아웃포켓	162(53.5)
		2개	시임포켓	14 (4.6)
			가슴+포켓	20 (6.6)
	하의	없음	61(20.1)	
		1개	뒤장식	6 (2.0)
			시임포켓	85(28.1)
		2개	사이드포켓	143(47.2)
			아웃포켓	8 (2.6)
색채	색상	흰색	51(16.8)	
		연한 녹색, 녹색계열	71(23.4)	
		분홍색	112(37.0)	
		아이보리색	27 (8.9)	
		하늘색	34(11.2)	
		기타	8 (2.7)	
	문양	없음	171(56.4)	
		병원/단체의 로고 및 문양	35(11.6)	
		줄무늬	54(17.8)	
		꽃무늬	20 (6.6)	
기타	23 (7.6)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	159(52.5)		
	면 100%	52(17.2)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83(27.4)		
	면/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	9 (3.0)		
계			303(100)	

특성을 관찰 조사한 결과 앞여밈 박스형의 밴드 칼라에 상의와 바지 모두 양쪽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는 형태가 가장 많았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00%이며 문양 없는 분홍색이 가장 많아 간호사복 형태(김용덕, 2004; 김선희, 2002)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표 1).

3. 유니폼의 맞음새

착용한 간병사 유니폼이 부위별로 알맞은 맞음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작다에 -2점, 크다에 +2점을 주어 평가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체로 맞음새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니폼의 형태적 특성상 에이프런형에서는 소매길이, 허벅지둘레, 밑위길이, 바지/스커트 길이 항목은 제외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상의는 목둘레가 크게 나타난 반면 겨드랑이 부위가 작게 나타났으며, 하의에서는 바지 길이가 긴 반면 허벅지둘레가 가장 작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도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슴둘레와 겨드랑이 부위의 경우가 작다고 한 경우가 10% 정도인데 반해 늘임 수선율이 전반적으로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보면 맞음새가 불량해도 수선을 하지 않고 잘 맞지 않는 옷을 그대로 착

용하고 근무에 임함을 알 수 있다.

유니폼 수급처에 따라 상의의 모두 맞음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입수경로에 따라서는 상의의 맞음새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니폼 수급처가 소속단체인 경우 특히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허벅지둘레가 조금 작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마련하는 경우 신체치수보다 좀 더 넉넉한 치수의 유니폼을 선택하여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어깨길이, 목둘레, 가슴둘레부위에서만 개인별로 맞추는 경우가 기성복을 구매하거나 물려받은 경우보다 맞음새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치수가 크다고 응답한 목둘레와 가슴둘레를 자신의 체형에 맞추어 착용함으로써 맞음새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유니폼의 조달에 따른 맞음새의 차이

M(S.D)

항목	의복수급처		계	t값		
	소속단체	개인 마련				
상의	상의길이	0.09(0.46)	0.21(0.47)	0.14(0.47)	-2.14*	
	소매길이	0.06(0.43)	0.21(0.47)	0.12(0.45)	-2.69**	
	어깨길이	0.08(0.43)	0.22(0.46)	0.14(0.45)	-2.54**	
	앞품	0.05(0.46)	0.27(0.47)	0.14(0.47)	-3.94***	
	뒤품	0.04(0.44)	0.27(0.47)	0.14(0.46)	-4.15***	
	목둘레	0.18(0.54)	0.34(0.51)	0.24(0.54)	-2.42**	
	가슴둘레	0.06(0.61)	0.25(0.55)	0.14(0.59)	-2.68**	
하의	겨드랑이 부위	-0.06(0.63)	0.18(0.53)	0.04(0.60)	-3.35***	
	허리둘레	-0.04(0.69)	0.23(0.50)	0.07(0.64)	-3.46***	
	엉덩이둘레	-0.06(0.64)	0.25(0.50)	0.07(0.61)	-4.19***	
	허벅지둘레	-0.07(0.57)	0.17(0.52)	0.03(0.56)	-3.43***	
	바지/스커트 밑단 둘레	0.10(0.42)	0.24(0.45)	0.16(0.44)	-2.64**	
	밑위길이	0.04(0.50)	0.22(0.44)	0.11(0.48)	-3.15**	
	바지/스커트 길이	0.17(0.50)	0.31(0.50)	0.23(0.51)	-2.14*	
항목	입수경로			계	F값	
	기성복 구매	개인별 맞춤	무상증여 기타			
상의	상의길이	0.17(0.52)	0.10(0.40)	0.26(0.62)	0.16(0.50)	1.38
	소매길이	0.16(0.50)	0.06(0.36)	0.29(0.63)	0.15(0.49)	2.89
	어깨길이	0.17(0.47)ab	0.07(0.41)a°	0.32(0.64)b	0.16(0.48)	3.44*
	앞품	0.17(0.49)	0.11(0.45)	0.24(0.55)	0.16(0.48)	0.87
	뒤품	0.16(0.48)	0.11(0.45)	0.21(0.48)	0.15(0.47)	0.58
	목둘레	0.27(0.56)b	0.12(0.46)a	0.35(0.54)b	0.24(0.54)	3.11*
	가슴둘레	0.18(0.60)b	0.00(0.54)a	0.35(0.54)b	0.15(0.59)	5.07**
겨드랑이 부위	0.10(0.60)	-0.04(0.64)	0.06(0.49)	0.06(0.60)	1.41	

* P≤0.05 ** P≤0.01 *** P≤0.001
(°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4. 간병사 유니폼의 불편도

1) 간병업무수행과 유니폼의 불편도

간병사가 수행하는 업무별로 유니폼 착용시의 불편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면 및 목욕시키기(3.22)가 가장 불편도가 높았고 용변 돕기(3.19), 옷 갈아입히기(3.03), 환자 자세 바꿔주기(3.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는 목욕시키기가 가장 불편하였고, 다음으로 환자의 체위변경, 용변 보조 순으로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목욕시키기를 가장 불편한 간병업무라고 한 것은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이는 목욕시키는 일이 동작이 크고 활동량이 많아 유니폼의 동적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간병업무시 유니폼 불편도는 연령과 입수경로, 의복형태, 소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6세 이상의 연령집단보다 45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기성복 구매 집단보다 무상증여받는 집단이 높은 불편도를 나타냈으며, 에이프런형보다 바지투피스형이, 면 100% 소재 착용집단과 면/PET 혼방 소재 착용집단보다 PET 100% 소재 착용집단이 더 높은 불편도를 나타내었다(표 3).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 착용시 불편도에 덜 민감하여 불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물려받은 경우는 증여시 치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바지투피스형은 개방적인 에이프런형보다 몸에 닿는 피복면적이 넓기 때문에 불편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PET 100% 소재 착용집단은 면/PET 혼방 소재 착용집단보다 대전성, 흡습성 등에서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유니폼의 부위별 불편도의 차이

에이프런형에서는 위팔둘레, 뒷길이, 팔길이 항목은 제외하고, 유니폼의 부위별 불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 부위와 엉덩이둘레(2.94), 가슴둘레(2.91), 진동둘레(2.90)가 상대적으로 불편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대체로 맞음새와 관련되어 맞음새가 불량한 부위가 활동성도 저하되어 불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위팔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46세 이상의 연령 집단보다 45세 이하의 연령집단이, 위팔둘레, 허리둘레, 팔길이에서, 13~24시간 근무하는 집단보다 8시간 이하 근무하는 집단이, 어깨 부위, 가슴둘레, 위팔둘레, 허리둘레, 앞품, 앞길이, 팔길이에서 주로 착용하는 집단이 항상 착용하는 집단보다 부위별 불편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표 4).

3) 부위별 맞음새와 불편도의 관계

부위별 맞음새와 불편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15)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앞품의 맞음새는 가슴둘레($r=-.15, p \leq .01$) 및 앞품($r=-.18, p \leq .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앞품이 작을수록 가슴둘레와 앞품의 불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뒤품의 맞음새는 등품($r=-.15, p \leq .05$)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뒤품이 작을수록 불편함을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둘레의 맞음새는 목 부위($r=.16, p \leq .01$)의 불편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목둘레가 클수록 착용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맞음새도 허리둘레($r=-.18, p \leq .01$)와 엉덩이둘레($r=-.19, p \leq .01$)의 불편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맞음새가 불량할수록 불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의의 가슴둘레와 앞품, 등품이 넉넉하고 목둘

<표 3> 각 특성에 따른 간병수행업무시 불편도

M(S.D)

각 특성에 따른 불편도				계	비고
연령	40세 이하	41~45세	46~50세		
	3.11(0.50) ^{b°}	3.11(0.45) ^b	2.79(0.62) ^a	2.93(0.57) ^a	2.95 (0.56)
입수경로	기성복 구매	개인별 맞춤	무상증여 기타		
	2.88(0.59) ^a	3.02(0.56) ^{ab}	3.19(0.34) ^b		
의복형태	에이프런형		바지투피스형		
	2.73(0.47)		2.99(0.56)		
소재	PET 100%	면 100%	면+PET		
	3.13(0.44) ^b	2.74(0.48) ^a	2.76(0.67) ^a		

** $P \leq 0.01$ *** $P \leq 0.001$

(°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표 4> 각 특성에 따른 유니폼의 부위별 불편도

M(S.D)

항목	연령				계	F값
	40세 이하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위팔둘레	3.11(0.58)b°	3.04(0.59)b	2.74(0.57)a	2.80(0.62)a	2.86(0.61)	5.35***
허리둘레	3.22(0.64)b	3.04(0.68)b	2.75(0.63)a	2.81(0.66)a	2.88(0.67)	5.36***
엉덩이둘레	3.19(0.62)b	3.09(0.62)b	2.84(0.61)a	2.88(0.76)a	2.94(0.69)	3.16*
항목	1일 평균 근무시간			계	F값	
	8시간 이하	9~12시간	13~24시간			
위팔둘레	3.05(0.64)b	2.87(0.58)ab	2.77(0.60)a	2.86(0.61)	4.58*	
허리둘레	3.06(0.74)b	2.91(0.63)ab	2.77(0.65)a	2.88(0.67)	4.14*	
팔길이	2.92(0.55)b	2.78(0.44)ab	2.71(0.60)a	2.78(0.53)	3.11*	
항목	착용정도		계	t값		
	주로 착용	항상 착용				
어깨 부위	3.01(0.55)	2.81(0.58)	2.86(0.58)	2.74*		
가슴둘레	3.06(0.59)	2.85(0.67)	2.91(0.66)	2.46*		
위팔둘레	2.97(0.56)	2.81(0.62)	2.85(0.60)	2.05*		
허리둘레	3.04(0.60)	2.82(0.68)	2.88(0.66)	2.53*		
앞품	2.94(0.52)	2.75(0.56)	2.80(0.56)	2.48*		
앞길이	2.90(0.42)	2.73(0.56)	2.77(0.53)	2.40*		
팔길이	2.90(0.45)	2.71(0.52)	2.76(0.51)	2.72**		

* P≤0.05 ** P≤0.01 *** P≤0.001
(°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표 5> 부위별 맞춤새와 불편도의 상관관계

불편도 \ 맞춤새	목부위	어깨 부위	가슴 둘레	위팔 둘레	진동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앞품	앞길이	등품	뒷길이	팔길이
상의길이	.05	-.06	-.06	-.03	-.01	-.06	-.08	.02	.03	.03	.02	.03
소매길이	.09	-.06	-.03	.03	.04	-.06	-.08	-.02	-.04	.01	-.03	-.01
어깨길이	.01	-.10	-.08	-.05	-.02	-.14**	-.14**	-.07	-.06	-.04	-.08	-.04
앞품	-.00	-.17**	-.15**	-.11	-.11	-.20**	-.18**	-.18**	-.13**	-.12**	-.09	-.10
뒤품	-.02	-.17**	-.18**	-.17**	-.16**	-.23**	-.18**	-.17**	-.13**	-.15**	-.11	-.13**
목둘레	.16**	-.06	-.05	-.05	-.03	-.05	-.02	-.04	-.02	-.06	-.01	-.01
가슴둘레	.17**	-.07	-.02	-.04	.02	-.06	-.07	-.03	-.01	-.04	.01	.02
거드랑이부위	.01	-.13**	-.14**	-.09	-.07	-.11	-.15**	-.07	-.06	-.07	-.02	-.02
허리둘레	.04	-.11	-.14**	-.11**	-.07	-.18**	-.21**	-.02	-.03	-.04	.03	-.01
엉덩이둘레	.10	-.10	-.08	-.06	-.01	-.15**	-.19**	-.03	-.02	-.03	.01	-.04
허벅지둘레	.03	-.09	-.08	-.08	-.02	-.12**	-.22**	.00	.03	.01	.02	-.02
바지밑단둘레	.10	-.05	-.05	-.03	.05	-.03	-.08	-.08	-.05	-.06	-.07	-.07
밑위길이	.03	-.12**	-.12**	-.09	-.03	-.10	-.18**	-.11	-.09	-.09	-.08	-.10
바지길이	.00	-.11	-.09	-.07	-.01	-.10	-.14**	-.10	-.07	-.08	-.12**	-.10

*P≤0.05 ** P≤0.01

레가 적당할수록, 하의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가 너적 할수록 불편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5. 간병사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과 선호감각

1)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

착용한 간병사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신축성 없음(3.45), 오염이 잘됨(3.39), 통풍이 안됨(3.37),

땀이 흡수되지 않음(3.31), 냄새가 잘 배임(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겁다(2.48), 쉽게 마르지 않음(2.65), 세탁/관리 불편(2.76)의 순으로 대체로 신축성, 오염성, 통기성, 흡수성이 부족하고 경량성, 건조성, 세탁/관리성은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PET 100% 소재 착용집단과 면/PET 혼방 소재 착용집단이 82.9%를 차지하기 때문에 PET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소재 적합성에 대해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는 통풍성에 대한 항목이 가장 적합성이 낮은 항목이었으며, 보풀,

<표 6> 각 특성에 따른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

M(S.D)

항목	연령				계	F값
	40세 이하	41~45세	46~50세	51세 이상		
오염이 잘 된다	3.59(0.75) ^{b°}	3.58(0.72) ^b	3.49(0.87) ^b	3.19(0.83) ^a	3.39(0.83)	4.93 ^{**}
냄새가 잘 배인다	3.44(0.70) ^c	3.52(0.70) ^c	3.08(0.82) ^b	2.84(0.69) ^a	3.11(0.78)	14.97 ^{***}
젖은 후 잘 마르지 않는다	3.26(0.66) ^b	3.12(0.79) ^b	2.51(0.75) ^a	2.36(0.73) ^a	2.65(0.82)	22.76 ^{***}
무겁다	2.78(0.75) ^b	2.63(0.95) ^b	2.55(0.86) ^b	2.29(0.62) ^a	2.48(0.79)	4.77 ^{**}
옷감이 뻣뻣하다	3.19(0.92) ^b	3.19(0.93) ^b	2.73(0.81) ^a	2.73(0.87) ^a	2.87(0.90)	6.11 ^{***}
보온이 잘 되지 않는다	2.93(0.55) ^a	3.28(0.60) ^b	2.99(0.77) ^a	3.06(0.70) ^a	3.08(0.70)	2.91 [*]
세탁/관리하기 불편하다	3.00(0.83) ^b	3.06(0.85) ^b	2.64(0.80) ^a	2.64(0.74) ^a	2.76(0.81)	5.77 ^{***}
잘 구겨진다	3.33(0.78) ^b	3.34(0.93) ^b	3.08(0.90) ^a	2.96(0.76) ^a	3.11(0.85)	3.75 [*]
세균감염되기 쉽다	3.22(0.70) ^{ab}	3.45(0.89) ^b	3.11(0.84) ^a	3.05(0.76) ^a	3.17(0.82)	3.82 ^{**}

항목	칼라 유무		계	t값
	칼라 없음	칼라 있음		
무겁다	2.68(0.88)	2.40(0.74)	2.48(0.79)	2.75 ^{**}
세탁/관리하기 불편하다	2.98(0.86)	2.68(0.77)	2.76(0.81)	2.89 ^{**}

항목	소재			계	F값
	PET 100%	면 100%	면+PET		
냄새가 잘 배인다	3.26(0.75) ^b	3.02(0.78) ^a	2.89(0.77) ^a	3.12(0.78)	7.07 ^{***}
젖은 후 잘 마르지 않는다	2.77(0.76) ^b	2.60(0.72) ^{ab}	2.51(0.96) ^a	2.66(0.82)	3.04 [*]
땀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	3.50(0.79) ^b	3.12(0.68) ^a	3.07(1.10) ^a	3.31(0.89)	8.30 ^{***}
보풀이 잘 발생한다	3.07(0.68) ^b	3.00(0.34) ^{ab}	2.77(0.95) ^a	2.97(0.73)	4.75 ^{**}
보온이 잘 되지 않는다	3.20(0.64) ^b	3.00(0.40) ^{ab}	2.90(0.89) ^a	3.08(0.70)	5.51 ^{**}
신축성이 없다	3.59(0.79) ^b	3.50(0.61) ^{ab}	3.25(1.12) ^a	3.48(0.88)	4.12 [*]

* $P \leq 0.05$ ** $P \leq 0.01$ *** $P \leq 0.001$

(°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땀 흡수성, 냄새 배임 순으로 소재 불편사항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사기간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통풍성 항목이 가장 적합도가 떨어진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 간병사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오염성과 무게 항목에서는 50세 이하의 연령집단보다 51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소재 적합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건조성과 뻣뻣함, 세탁/관리성, 구김성 항목에서는 45세 이하의 연령집단보다 46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소재 적합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칼라 유무에 따라서 무게와 세탁/관리성 항목에서 칼라가 없는 형태보다 칼라가 있는 형태가 더 무거우며, 세탁/관리가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한 소재에 따른 소재의 적합성 평가는 전반적으로 세 집단 중 면/PET 혼방 소재 착용집단이 소재 적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냄새 배임, 건조성, 땀 흡수성, 보풀, 보온성, 신축성의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냄새 배임과 땀 흡수성은 PET 100% 소재 착용집단이 면 100%나 면/폴리 혼방 소재 착용집단보다 적합성을 낮게 인지했으며, 건조성, 보풀, 보온성, 신축성은

PET 100% 소재 착용집단이 면/폴리 혼방 소재 착용집단보다 적합성을 더 낮게 인지하였다. 이는 간병사 개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소재의 본래 특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6).

2) 유니폼 소재의 감각선호도

간병복 소재에 대한 감각선호도를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감각은 신축성(5.55), 회복성(5.46), 촉감(5.30), 가벼움(5.26), 구김 안감(5.24), 강함(5.16), 부드러움(5.03)의 순이며, 선호하지 않는 감각은 배김(1.86), 휘감김(1.88), 투박함(1.91), 눅눅함(1.92)과 끈적거림(1.93), 뻣침(1.95)과 거칠음(1.95)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선호감각을 피부접촉 면적이 많은 잠옷감에 관한 선행연구(최종명 외, 2001)에서 밝힌 요인으로 묶어 선호감각을 살펴본 결과 신축/회복성(5.30)과 유연성(4.85)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거친 특성(2.08)과 습윤 특성(2.09)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재감각의 요인별 선호도

요인	문항	선호도(M)
거친 특성 ($\alpha=0.88$)	투박하다	2.08
	뽀찐다	
	거칠다	
	배긴다	
	성글다	
습윤 특성 ($\alpha=0.87$)	휘감긴다	2.09
	녹녹하다	
	늘어진다	
	끈적거린다	
	두껍다	
유연성 ($\alpha=0.91$)	회복성이 좋다	4.85
	포근하다	
	산뜻하다	
	보들보들하다	
	촉촉하다	
강경성 ($\alpha=0.69$)	딱딱하다	2.65
	뻣뻣하다	
	톡톡하다	
	오돌도돌하다	
	매끄럽다	
매끄러움성 ($\alpha=0.72$)	부드럽다	3.93
	하늘하늘하다	
	광택있다	
	따뜻하다	
온열감 ($\alpha=0.81$)	폭신평신타다	4.19
	신축성이 있다	
신축/회복성 ($\alpha=0.83$)	구김이 안간다	5.30
	강하다	
	보송보송하다	
건조감 ($\alpha=0.69$)	건조하다	4.29
	가볍다	
	까실까실하다	

다. 따라서 간병사 유니폼의 소재 감각은 신축/회복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를 선호하고, 거칠고 습윤감이 높은 소재를 가장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간병사 유니폼의 만족도

1)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간병사 유니폼의 전반적인 만족도(표 8)는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재(2.70)가 가장 만족도가 낮았고, 치수(2.86), 착용감과 가격(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주머니와 색상 항목이었다. 간호사복의 만족도 조사에서 치수와 디자인 만족도가 낮았던 선행연구(김선희, 2002)에 비해 간병사복은 치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간병사복과 간호사복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2) 유니폼의 착용과 디자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에이프런형이 바지투피스형보다 소재, 착용감, 세탁/관리성,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주로 착용하는 집단보다 항상 착용하는 집단이 디자인 형태, 주머니, 색상, 문양, 착용감, 세탁/관리성,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에서 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의 착용정도에 따른 부위별 불편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항상 착용하지 않고 주로 착용하는 집단이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때 불편해서 가끔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과 소재에 따른 유니폼의 만족도는 프린세스 라인의 유무나 칼라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나지 않았으며, 칼라 없는 형태보다 칼라 있는 형태가 착용감, 세탁/관리

<표 8> 유니폼의 만족도

N(%)

구분	M(S.D)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디자인 형태	3.11(0.52)	0(0.0)	26 (8.6)	219(72.5)	56(18.5)	1(0.3)
주머니	3.18(0.55)	0(0.0)	22 (7.3)	206(68.2)	73(24.2)	1(0.3)
색상	3.17(0.59)	0(0.0)	30 (9.9)	194(64.0)	78(25.7)	1(0.3)
문양	3.12(0.55)	1(0.3)	25 (8.3)	214(70.9)	61(20.2)	1(0.3)
치수	2.86(0.67)	5(1.7)	75(24.8)	179(59.3)	42(13.9)	1(0.3)
소재	2.70(0.76)	12(4.0)	108(35.6)	143(47.2)	38(12.5)	2(0.7)
착용감	2.91(0.68)	10(3.3)	52(17.2)	195(64.6)	44(14.6)	1(0.3)
세탁/관리성	3.04(0.67)	8(2.6)	34(11.3)	201(66.6)	56(18.5)	3(1.0)
가격	2.91(0.59)	4(1.3)	52(17.3)	212(70.7)	30(10.0)	2(0.7)
전반적인 만족도	3.02(0.63)	7(2.3)	35(11.6)	206(68.0)	54(17.8)	1(0.3)

<표 9> 유니폼의 착용과 디자인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M(S.D)

항목	의복형태		계	t값		
	에이프런형	바지투피스형				
소재	3.16(0.76)	2.63(0.75)	2.69(0.77)	4.06***		
착용감	3.22(0.63)	2.86(0.68)	2.91(0.68)	2.99**		
세탁/관리성	3.32(0.48)	2.98(0.67)	3.03(0.66)	2.97**		
전반적인 만족도	3.27(0.51)	2.98(0.64)	3.01(0.63)	2.68**		
항목	착용정도		계	t값		
	주로 착용	항상 착용				
전체디자인 형태	2.97(0.40)	3.15(0.55)	3.10(0.52)	-2.55*		
주머니	3.00(0.43)	3.22(0.56)	3.16(0.54)	-3.18**		
색상	3.01(0.41)	3.20(0.62)	3.15(0.58)	-2.50*		
문양	2.96(0.47)	3.15(0.55)	3.10(0.53)	-2.75**		
착용감	2.66(0.66)	3.00(0.66)	2.91(0.68)	-3.91***		
세탁/관리성	2.75(0.69)	3.13(0.64)	3.03(0.67)	-4.37***		
전반적인 만족도	2.86(0.62)	3.08(0.63)	3.02(0.64)	-2.70**		
항목	칼라 유무		계	t값		
	칼라 없음	칼라 있음				
착용감	2.67(0.75)	3.00(0.62)	2.91(0.68)	-3.87***		
세탁/관리성	2.81(0.77)	3.13(0.60)	3.04(0.67)	-3.82***		
항목	상의 주머니 개수				계	F값
	없음	1개	2개	3개		
주머니 만족도	3.07(0.56)a°	3.18(0.54)a	3.24(0.53)ab	3.50(0.51)b	3.18(0.55)	3.53*
항목	소재			계	F값	
	PET 100%	면 100%	면+PET			
소재 만족도	2.60(0.78)a	3.10(0.77)b	2.64(0.66)a	2.70(0.77)	8.95***	

* $P \leq 0.05$ ** $P \leq 0.01$ *** $P \leq 0.001$

(° 서로 다른 문자는 다른 집단임을 의미함.)

성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목둘레가 크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이 목둘레가 크면 속이 들여다보일 수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선희(2002)의 연구에서는 컨버터블 칼라가 라운드 네크라인과 만다린 칼라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는 라운드 네크라인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상의 주머니 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의의 주머니가 없는 집단이 가장 만족도가 낮고, 주머니가 3개인 집단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주머니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ET 100% 소재 착용집단과 면/PET 혼방 소재 착용집단보다 면 100% 소재 착용집단이 현재 착용한 소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100% 소재 착용집단이 거의 에이프런 형태를 착용하는 집단으로써 에이프런형 집단의 전체 만족도가 높은 집단적 경향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부위별 불편도와 만족도의 관계

부위별 불편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한 결과, 모든 부위별 불편도는 치수, 착용감,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각 부위의 불편도가 높을수록 치수와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전반적으로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착용하는 간병사 유니폼의 착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수 맞춤새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만족도의 하위변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의 하위변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회귀분석을 한 결과 총 설명력은 62%이었다($P \leq .001$).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주머니와 문양을 제외한 세탁/관리성($\beta=0.23$), 색상($\beta=0.19$), 착용감($\beta=0.18$), 치수($\beta=0.17$), 소재

<표 10> 부위별 불편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

부위별 불편도 \ 만족도	만족도	치수 만족도	착용감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목 부위		-.23**	-.28**	-.24**
어깨 부위		-.27**	-.36**	-.33**
가슴둘레		-.27**	-.29**	-.33**
위팔둘레		-.28**	-.35**	-.35**
진동둘레		-.31**	-.31**	-.37**
허리둘레		-.35**	-.44**	-.39**
엉덩이둘레		-.28**	-.33**	-.25**
앞품		-.23**	-.32**	-.32**
앞길이		-.26**	-.32**	-.38**
등품		-.25**	-.34**	-.34**
뒷길이		-.24**	-.30**	-.30**
팔길이		-.26**	-.33**	-.29**

** P≤0.01

(β=.16), 디자인(β=.15), 가격(β=.09)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세탁/관리성이며, 가장 영향력이 낮은 것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탁관리성과 함께 치수 맞춤새와 디자인이 적합하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7. 간병사 유니폼의 개선요구도

간병사 유니폼에 대해 가장 개선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활동의 편안함(3.75)이었으며, 평균 소재의 필요(3.73), 다양한 사이즈 체계 필요(3.71), 소재의 개선(3.68)과 체형에 적합한 치수 확대(3.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희(2002)의 연구에서 치수 체계에 대해 세분화된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와 체형별로 구체적 치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각각 15.2%, 52.6%로 나타나, 전체의 67.8%가 현재의 치수 체계에 불만족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하고 체형에 맞는 치수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12).

<표 11> 만족도의 하위변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비고
전반적인 만족도	디자인	.18	.15	3.13**	F=55.69* R ² =.62
	주머니	-.09	-.08	-1.62	
	색상	.20	.19	3.05**	
	문양	-.03	-.03	-0.44	
	치수	.16	.17	3.33***	
	소재	.14	.16	3.39***	
	착용감	.17	.18	2.83**	
	세탁/관리성	.22	.23	4.05***	
가격	.09	.09	2.14*		

* P≤0.05 ** P≤0.01 *** P≤0.001

<표 12> 유니폼의 개선요구도

N(%)

구분	M(S.D)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디자인의 다양성	3.35(0.79)	0(0.0)	48(15.8)	113(37.3)	130(42.9)	12(4.0)
소재의 개선	3.68(0.74)	0(0.0)	26(8.6)	68(22.4)	185(61.1)	24(7.9)
색상의 다양성	3.39(0.74)	1(0.3)	31(10.2)	132(43.6)	126(41.6)	13(4.3)
체형에 적합한 치수 확대	3.68(0.78)	0(0.0)	19(6.3)	98(32.3)	147(48.5)	39(12.9)
다양한 사이즈체계 필요	3.71(0.79)	0(0.0)	19(6.3)	92(30.4)	149(49.2)	43(14.2)
활동의 편안함	3.75(0.84)	0(0.0)	15(5.0)	107(35.3)	119(39.3)	62(20.5)
세탁/관리의 편리성	3.63(0.82)	0(0.0)	16(5.3)	131(43.2)	105(34.7)	51(16.8)
개인의 선택권 부여	3.35(0.75)	0(0.0)	31(10.2)	155(51.2)	97(32.0)	20(6.6)
병원/병동에 따른 색상/무늬 구분	3.22(0.72)	1(0.3)	36(11.9)	174(57.6)	78(25.8)	13(4.3)
소속단체에 따른 색상/무늬 통일	3.32(0.75)	3(1.0)	28(9.2)	155(51.2)	102(33.7)	15(5.0)
계절에 따른 구분	3.58(0.78)	1(0.3)	18(5.9)	122(40.3)	129(42.6)	33(10.9)
세균감염 방지 소재(항균)의 필요	3.73(0.77)	0(0.0)	12(4.0)	106(35.0)	137(45.2)	48(15.8)

유니폼의 개선요구도는 착용자의 연령, 착용정도, 의복수급처, 입수방법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leq .01$). 전 항목에서 41~45세 연령집단이 가장 높은 개선요구도를 나타냈으며, 40세 이하, 46~50세, 51세 이상의 연령집단 순으로 개선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가 더 민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니폼을 개인이 마련하는 경우보다 소속단체에서 수급 받는 경우가 체형에 적합한 치수 확대, 활동의 편안함, 세탁/관리의 편리성, 세균감염 방지(항균) 소재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였으며, 개인별 맞춤 집단이나 무상증여 집단보다 기성복 구매 집단이 디자인의 다양성, 체형에 적합한 치수 확대, 다양한 사이즈 체계의 필요성, 활동의 편안함 항목에서 개선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니폼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이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내어 앞의 조사결과에서 항상 착용하는 집단보다 주로 착용하는 집단이 유니폼의 불편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성향을 보여 준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간병사 유니폼으로 가장 많이 착용한 바지투피스형은 앞중심 여밈, 박스형, 밴드칼라, 상·하의 2개의 주머니, 문양없는 분홍색으로 대체로 착용자들은 큰 치수의 기성복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착용만족도와 개선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니폼의 착용만족도 중 부위별 맞춤세를 살펴보면 목둘레와 가슴둘레는 크고, 겨드랑이 부위와 허벅지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 불편도는 목 부위와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진동둘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맞춤세가 크거나 작게 조사된 부위로서 불편도와 맞춤세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니폼의 소재 적합성은 신축성 항목이 가장 낮고, 오염성, 통풍성, 땀 흡수성, 냄새 배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연성과 좋은 촉감, 신축/회복성이 높은 소재를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유니폼의 소재, 치수, 착용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으며, 색상과 문양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유니폼 착용시 불편도가 높을수록 치수와 착용감,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았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착용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세탁/관리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개선요구도를 살펴보면 활동성의 개선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재의항균성, 사이즈 체계의 다양성, 체

형에 적합한 치수 확대에 대한 개선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가 잘 맞지 않을수록, 치수 만족도가 낮아 치수 체계와 활동성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사 유니폼의 착용만족도와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소재, 패턴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디자인 측면에서, 형태는 바지투피스형으로써 상의에 프린세스 라인을 주어 심미성을 살리고, 상·하의에 2개씩 주머니를 두어 수납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간호사복과 차별화할 상징성을 부여한 디테일이나 로고를 이용한다. 간호사의 캡처럼 일부 기능은 다르지만, 모발 탈락방이나 청결성을 위해 머리에 스카프나 모자를 착용하고 허벅지 부위에 필요시 모자를 접어 넣을 수 있는 수납 주머니를 달고 색상은 분홍색이나 연한 녹색 계열로 한다. 에이프런형 유니폼의 착용편리성, 세탁관리성, 경제성 측면의 이점 때문에 에이프런형 유니폼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착탈이 편리한 여밈 장치와 세탁관리성, 경제성을 고려한다.

소재측면에서, 착용자의 소재 선호감성을 반영하고 기능성과 항균성을 지닌 소재로 가볍고 유연하며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극세섬유를 사용하고, 흡습가공 소재로써 내추성과 신축성이 좋은 혼방소재를 활용한다.

패턴설계 시, 상의의 등 뒤 요크에 맞추름 플리츠를 내거나 요크 부분만 사방 스판 소재나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동작기능성을 높이고, 소매산을 낮추거나 래글런 소매를 이용하여 팔과 겨드랑이의 큰 동작 범위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의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에 신축성 소재나 플리츠를 활용하고, 허리둘레에 부분적으로 고무줄을 넣어 둘레 조절이 용이하도록 한다.

치수 맞춤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지오더식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거나 중년 체형에 적합한 치수 체계를 확대하고, 동작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패턴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제어 : 간병사, 간병사 유니폼, 착용만족도, 개선요구도, 맞춤세

참 고 문 헌

- 김덕용(2004), 종합병원의 간호사복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문실, 박영숙, 이경원, 이상미, 이인애(1994), 간병인 이용에 관한 의료 소비자의 의견 조사연구, 대한간호, 33(3),

- 40-55.
- 김선희(2002), 국내 간호사복 착용현황에 대한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168-178.
- 김선희, 류은정(2002), 간호사복의 치수적합성과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40**(8), 183-190.
- 김인숙(1999), 간병인 교육평가프로그램 평가요소에 대한 교육생의 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화(2006), 중년 여성의 캐킷 패턴 개발을 위한 착용만족도와 맞음새 평가,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자경(1999), 노인전문병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종사자와 사용자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권수애(2006), 노인 간병인 유니폼을 위한 색채와 향기의 스트레스 감소효과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 2006 하계학술대회*, 115-116.
-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1997a),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455-470.
- 남윤자, 김경인, 이윤정(1997b),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II, *복식*, **33**(0), 229-253.
- 변재관(2001), 복지간병사업 제도화 방안, 「복지간병사업 제도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심순학(1993), 임상간호사의 간호유니폼에 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선(2006),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니폼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4**(2), 206-219.
- 이옥희, 홍병숙(1997), 섬유업체 근로여성의 작업복 실태 및 선호연구, *대학가정학회지*, **35**(4), 185-198.
- 이은영(1990), 호텔 내의 한식당 종업원의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6), 간병인 유니폼 개발에 관한 연구-노인의료복지시설 간병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룡, 이종직, 차석빈(2005), 호텔 직원의 유니폼 만족도, 역할갈등 및 고객지향성의 관계 연구, *관광학연구*, **29**(1), 287-308.
- 임국환, 김영환(2005), 종합병원에서 활동한 간병인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보건과학논집*, **21**(1), 13-20.
- 장성욱, 길숙영(2003), *기본간호학 실습지침서*, 서울, 군자출판사.
- 장옥자(2002),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간병정책, *혜전대학 논문집*, **21**, 319-346.
- 장옥자(2003),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가 경험한 간병인의 업무 실태 조사, *혜전대학 논문집*, **21**, 136-143.
- 전귀숙(2001), 간병인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옥(2004), 종합병원 유료간병인 이용행태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만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삼호(1999), 농촌 여성의 농작업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농약 방제복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2**(0), 173-191.
- 조홍식, 홍성순, 박민여(1998), 간호사복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2**(1), 41-50.
- 최종명, 권수애, 김은영(2001), “여름과 겨울철 잠옷감에 대한 주관적 선호감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5**(2), 389-400.
- 최항석(2006),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실태와 간병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 손부현, 도윤희, 김은정, 강여선(2003), 테크니컬 웨어 설계, *수학사*, 186-190.
- 한동희, 손태홍, 서화정(1998), 노인간병인력의 필요성과 양성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노년학*, **18**(1), 59-74.
- 한연희, 박명희(2005),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 *한국의류학회지*, **29**(5), 649-661.
- 황나미, 고덕기(1998), 종합병원 간병인 활용현황과 개선방안(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나미, 최병호, 박현태, 김동진(2006a), 의료기관 간병인 실태와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나미, 최병호, 박현태, 김동진(2006b),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은경, 정성지, 장남경(2006), 치과위생사 유니폼 착용실태, 만족도,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1), 93-107.
- Coolever™, 자료검색일 : 2007. 3.20, http://www.huvis.com/product/End/Product.asp?prd_code=1125&cat_code=10150(휴비스)
- ATB®-100, 자료검색일 : 2007. 3.20, <http://www.ikolon.com/rd/field/yarn/yarn14.html>(코오롱)
- 케어복지사, 자료검색일 : 2007. 4.15, http://www.ccca.or.kr/sub/care_sub01.html(한국기독교케어복지사협회)

(2007. 12. 10 접수; 2008. 2. 10 채택)